

## 전 여친 결혼식에 여장하고 갔다가



▲ 여장이 발각돼 추궁 당하고 있는 남성. 사진=유튜브(VMI WORLD) 캡처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남자가 하객에게 발각돼 쫓겨 달아났다.

최근 인도 북부에 있는 우타

르프라데시 바도히의 전통혼례장에서 한 여자가 신부대기실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하객들이 이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장을 한 남자처럼 보여 추궁한 결과 그는 신부의 전 남자친구였다. 그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발을 쓰고 곱게 화장했으며 인도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상 '사리' 까지 갖춰 입었다. 팔찌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거며, '두파타' 라는 베일을 얼굴에 두른 것까지 영락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은 신부를 만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가 남자임을 알아챘다.

하객 중 한 명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에는 하객들이 남자를 다그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자는 얼굴을 가린 베일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러다 경찰에 신고 중인 하객의 전화를 빼앗은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줄행랑을 쳤다.

소동의 배경에는 중매 결혼이 90%라는 인도의 결혼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같은 계급, 같은 종교의 남녀가 부모 간 합의에 따라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다. 젊은층을 상대로 한 온라인 연애 사업도 성장하고 있으나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풍습은 여전하다. 계급과 종교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신부 측이 신랑 측에 전달하는 지참금 관행도 무시할 수 없어 연애 결혼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27일에는 결혼식 도중 심장마비로 숨진 언니 대신 여동생이 신부로 나서 신랑과 결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역시 지참금 문제가 얽혀 있어 파혼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8세 소년이 '돈쫄' 난 사연

8세 소년이 '돈쫄' ('돈' + '흔쫄내다'의 합성어. 어떠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돈으로 흔내야 한다'라는 뜻으로 생긴 신조어-편집자주) 당한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레바논 마을에 사는 8세 소년 브라이슨 클리멘은 최근 집에서 키우는 생후 4개월 강아지 '브루스'가 치사율 높은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자 4살때부터 모으며 애지중지했던 포켓몬 카드를 팔기로 결심했다. 엄마 김벌리 우드러프는 26살 학생이고, 수목보호 기술자로 일하는 아빠는 수입이 많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약 800달러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엄마가 말렸지만, 브라이슨은 결국 '포켓몬 팝니다 (Pokemon 4 SALE)'라는 문구를 적은 가판대를 집 앞 마당에 세웠다. 엄마 김벌리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브라이슨의 사연이 알려지자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졌다. 브라이슨이 파는 포켓몬 카드 가격은 5~10달러였는데, 몇몇 어른들은 20달러를 그냥 두고 갔다.

그렇게 이틀간 브라이슨은 400달러를 모았다. 동네 주점 주인은 사흘간 행사를 열어 450달러를 모아주었



▲ 가판대에서 포켓몬 카드를 팔고 있는 브라이슨. 사진=유튜브(-407 Studios) 캡처

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도 브라이슨을 도왔다. 8일 현재 온라인 기금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는 목표액인 800달러를 훌쩍 넘는 14,398달러가 모였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강아지 브루스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브라이슨 가족은 브루스를 치료한 동물병원과 지역 동물보호소에 남은 기부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누군가 치료비 후원이 필요하다면 도와 주자."는 뜻이었다. 현재까지 세 가족이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7남3녀" 열 쌍둥이 출산한 여성



▲ 시틀레 부부. 사진=유튜브(Thenjiwe TV) 캡처

남아프리카의 한 여성이 10명의 쌍둥이를 출산해 이 분야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주에 사는 고시아메 타마라 시틀레(37)는 지난 7일 10명의 쌍둥이(7남3녀)를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시틀레 부부는 이미 6세된 쌍둥이를 두고 있었다.

시틀레는 임신 초기 여섯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출산 전 초음파 검사에서 두 명의 아이들을 더 확인했다. 시틀레는 "많아봤자 세 쌍둥이 정도였지 했는데, 여덟 쌍둥이라더라. 믿을 수가 없었다. 아기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두려워 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출산일에 벌어졌다. 한 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은 시틀레는 총 7남3녀의 열 쌍둥이를 출산했다.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두 명의 아이가 추가로 나온 것이다.

시틀레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 7개월 7일 만에 열 쌍둥이를 낳았다. 아들 일곱, 딸 셋이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기뻐했다.

한편 지난달 서아프리카 말리에 사는 할리마 시세라는 여인이 제왕절개로 4남 5녀를 낳으며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작성했지만 이번 시틀레의 출산으로 쌍둥이 출산 세계 기록이 '열쌍둥이'로 바뀌게 됐다.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